'한 병을 다 마시기 전까지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와인'

다렌버그 피셔스 로드스타

The Piceous Lodestar

지역	호주 〉 남호주 〉 맥라렌 베일		
포도품종	쉬라즈 100%		
알코올	14.8%	용량	750ml
시음 적정 온도	15-18℃		
테이스팅 노트	다크 초콜렛, 블랙베리, 흙 느낌이 물씬나는 와인으로 정제된 탄닌감이 느껴진다. 페퍼리한 향신료와 풍성한 과실미가 어우러지며 놀랍도록 길게 이어지는 여운이 매력적이다. 입 안에서 볼륨감 있게 느껴지는 와인으로 여러 층의 레이어가 쌓인듯한 풍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구조감과 밸런스가 인상적이다.		
페어링 TIP	붉은 육류/흰 육류/익힌 생선/익힌 채소/치즈/훈제, 염장 음식/피자, 파스타		

당도 (DRY – SWEET): **1** 2 3 4 5

바디 (LIGHT – FULL): **1** **2** **3** **4** **5**

제품설명

로드스타(Lodestar)는 방향성, 지침을 의미하며 피셔스(Piceous)는 검정에 가까운 짙은 어두운 색을 의미한다. 검붉은 컬러의 이 와인을 다 마실 때까지 집중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은 와인으로 최소 6년 이상의 병입 후 숙성 후 음용을 추천하는 긴 숙성 잠재력의 와인이다. 지금 오픈하여 마신다면,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 곁들이고 반드시 디캔팅할 것을 추천하는 무게감있고 진중한 타입의 와인이다. 프렌치 오크 배럴 내 20개월 숙성으로 마무리하였다.

수상내역

2015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2점
2014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5점
2013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4점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